리아우 제도와 국경 간 경제구역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바탐청에서 성장 삼각지대까지

리아우 제도는 싱가포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싱가포르 남쪽 6~20킬로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19세기에 이 섬들은 싱가포르와 같은 술탄국에 속했으며, 제A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감비어와 후추 농장에 물자를 공급했습니다. 바탐의 근대적 개발은 1973년 대통령령 제41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 바탐을 개발청 관할의 산업지역으로 지정했으며, 이 개발청이 훗날 BP 바탐(BP Batam)이 되었습니다. 표방된 목표는 바탐을 인도네시아판 싱가포르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1]

결정적인 한 걸음은 싱가포르에서 나왔습니다. 1989년 고촉통(Goh Chok Tong) 부총리는 싱가포르, 조호르, 리아우 제도를 잇는 성장 삼각지대를 공개적으로 제안했으며, 이는 SIJORI라는 약칭으로 알려졌습니다. 발상은 단순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자본, 경영, 인프라,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이 있었지만 토지와 노동력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조호르와 리아우에는 토지와 노동력이 있었지만 다른 요소가 없었습니다. 1994년 12월 17일 리센룽, 라피다 아지즈(Rafidah Aziz), 하르토노(Hartono)가 서명한 양해각서는 이 협력체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성장 삼각지대로 공식화했습니다.[2]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자유무역지대와 경제특구의 틀

바탐의 법적 틀은 여러 차례 다시 짜였습니다. 2006년 6월 양국 정부는 바탐과 빈탄·카리문 일부를 싱가포르와 연계된 경제특구로 만드는 틀에 합의했으며, 바탐과 싱가포르 사이에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철폐했습니다. 이어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2007년 법률 제44호는 바탐을 70년간 자유무역지대로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016년 대통령령 제8호는 이 구역에 대한 감독권을 자카르타의 경제조정장관실로 이관했습니다.[3] 잦은 변경은 섬과 그 수입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둘러싸고 자카르타, 주정부, 지방 당국 사이에서 반복되는 긴장을 반영합니다.

산업단지, 조선소, 데이터센터

바탐은 싱가포르의 산업 별관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대규모 산업단지인 바타민도 산업단지(Batamindo Industrial Park)는 1990년 싱가포르 정부연계기업들과 인도네시아 최대 재벌 가운데 하나인 살림(Salim) 그룹의 합작투자로 문을 열었습니다.[4] 전자제품 조립과 조선이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5] 도시 인구는 1970년대 초 수천 명에서 2020년 인구조사 당시 119만 6,396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 중반 공식 추정치는 129만 6,960명입니다.[6]

싱가포르는 여전히 압도적인 투자자입니다. 2023년 상반기 바탐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12억 미국달러에 이르렀고 그 대부분이 싱가포르에서 왔으며, 국내투자는 1억 6,800만 미국달러였습니다. 최근의 투자 물결은 디지털 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센터에는 싱가포르에서 부족한 토지와 전력, 그리고 싱가포르 네트워크로의 빠른 연결이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바탐의 농사 디지털 파크(Nongsa Digital Park)와 창이를 잇는 50킬로미터 해저케이블이 완공되었습니다. 2026년 6월에는 한 호주 기업이 바탐에 360메가와트 규모의 인공지능 캠퍼스를 세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 1분기 가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7] 이러한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은 프로젝트 대출, 인프라 펀드, 사모 신용을 통해 대부분 싱가포르에서 주선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해협을 넘는 에너지

에너지는 또 하나의 협력 분야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2035년까지 최대 6기가와트의 저탄소 전력을 수입할 계획이며, 이는 그해 수요의 약 30%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토지와 태양광 잠재력을 갖춘 리아우 제도는 당연한 공급원입니다. 에너지시장청(Energy Market Authority, EMA)은 수입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그중에는 말레이반도로부터의 100메가와트와 바탐 인근 풀라우 불란(Pulau Bulan)의 태양광 발전단지로부터의 100메가와트 상당 공급이 있습니다.[8] 리아우 제도의 배터리 저장장치를 갖춘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는 각각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제K편 제II장에서 다루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녹색채권 시장을 만들어 냅니다. 동시에 싱가포르의 에너지 안보를 부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인허가와 정치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2022년의 협정들

수십 년 동안 두 가지 문제가 양국 관계를 괴롭혔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의 부재와 리아우 제도 상공의 영공 관리였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2007년 4월 27일 발리의 탐팍시링(Tampaksiring)에서 서명되었지만 어느 쪽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비준이 국방협력협정과 연계되어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의회가 그 승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9] 인도네시아의 비판자들은 오랫동안 싱가포르를 1997–1998년 은행위기 때 도주한 채무자들의 피난처라고 묘사했으며, 싱가포르는 이러한 비난을 부인했습니다.

교착 상태는 빈탄에서 열린 정상 회동(Leaders' Retreat)에서 끝났습니다. 2022년 1월 25일 양국 정부는 새 범죄인 인도조약, 비행정보구역 재조정에 관한 협정, 그리고 갱신된 국방협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부패, 자금세탁, 뇌물, 은행 관련 범죄, 테러자금조달을 포함한 31개 유형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18년 전에 저질러진 범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세 협정은 2024년 3월 21일 함께 발효되었습니다.[10] 금융중심지로서는 이 조약으로 오랜 평판상의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때 싱가포르로 옮겨 가면 기소를 피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인도네시아 고객의 계산도 바뀌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Wikipedia, “Batam”(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바탐은 싱가포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싱가포르 남쪽 해안에서 약 20km, 최소 6km 떨어져 있음; Wikipedia, “Batam”(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3년 대통령령 제41호는 바탐을 훗날 BP 바탐이 된 개발청이 지원하는 산업지역으로 지정함; 초기 목표는 바탐을 “the Indonesian version of Singapore”로 만드는 것이었음. ↩

2. Wikipedia, “Indonesia–Malaysia–Singapore Growth Triangl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89년 고촉통 부총리가 처음 공개 발표; 1994년 12월 17일 리센룽(싱가포르), 라피다 아지즈(말레이시아), 하르토노(인도네시아)가 양해각서에 서명. ↩

3. Wikipedia, “Batam”(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06년 6월의 틀에 따라 바탐, 빈탄 일부, 카리문 일부가 싱가포르와의 경제특구에 편입되어 바탐과 싱가포르 사이에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철폐됨; 2007년 법률 제44호는 바탐을 70년간 자유무역지대로 정함; Wikipedia, “Batam”(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16년 대통령령 제8호는 산업단지에 대한 감독권을 리아우 제도 주지사로부터 경제조정장관실로 이관함. ↩

4. 1990년 싱가포르 측의 싱가포르 테크놀로지스(Singapore Technologies) 및 주롱 환경엔지니어링(Jurong Environmental Engineering)과 인도네시아 측의 살림 그룹 간 합작투자로 바타민도 산업단지가 설립된 경위에 관하여는 Sembcorp 및 Batamindo의 회사 연혁 참조. ↩

5. Wikipedia, “Batam”(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조선과 전자제품 제조가 섬의 주요 산업임. ↩

6. Wikipedia, “Batam”(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0년 인구조사 119만 6,396명; 2025년 중반 공식 추정치 129만 6,960명.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Wikipedia, “Batam”(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3년 상반기 외국인투자는 12억 미국달러, 국내투자는 1억 6,800만 미국달러에 이르렀으며 외국인투자의 대부분은 싱가포르에서 옴; Wikipedia, “Batam”(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농사 디지털 파크와 창이를 잇는 50km 길이의 농사–창이 케이블(Nongsa–Changi Cable)이 2026년 7월 완공되었고 2026년 9월 전면 가동 예정; 2026년 6월 Firmus Technologies가 DayOne과 함께 바탐에 360MW 규모의 AI 캠퍼스를 세울 계획을 발표했으며 2027년 1분기 가동 예정. ↩

8. Wikipedia, “Energy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싱가포르는 2035년까지 최대 6GW의 저탄소 전력을 수입할 계획이며, 이는 2035년 에너지 수요의 약 30%에 해당함; 목표는 4GW에서 상향됨; Wikipedia, “Energy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EMA는 말레이반도로부터 100MW를 수입하는 2년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함; 인도네시아 풀라우 불란의 태양광 발전단지로부터 100MW 상당의 비간헐적 공급도 시범 운영됨. ↩

9.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각사무처(Cabinet Secretaria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Indonesia, Singapore Sign Extradition Treaty”(setkab.go.id,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전 조약은 2007년 4월 27일 발리 탐팍시링에서 서명되었으나 양국 모두 비준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함; 비준은 안보협력 협정(Security Cooperation Agreement)과 연계되어 있었고, 하원 제1위원회가 2007년 6월 그 비준을 거부함. ↩

10. 인도네시아 공화국 내각사무처, “Indonesia, Singapore Sign Extradition Treaty”(setkab.go.id,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2022년 1월 25일 빈탄에서 야소나 H. 라올리(Yasonna H. Laoly)와 K. 샨무감(K. Shanmugam)이 서명; 부패, 자금세탁, 뇌물, 은행 관련 범죄, 마약,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을 포함한 31개 유형의 범죄; 18년 소급 적용; “Three landmark agreements between S’pore and Indonesia take effect”, *The Star*, 2024년 3월 22일: 협정들은 “officially came into force on March 21”; 범죄인 인도조약은 “can be retrospectively applied to crimes committed up to 18 years ago”.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